FIFA U-20 월드컵 A조 선수단 전주 입성

16강 진출 위한 본격 경쟁 돌입

대표팀, 20일 기니전 · 23일 아르헨티나전 두 경기 치른 후 3차전 경기 위해 수원으로 이동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참가팀들의 16강 진출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됐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날 이번 대회 공식 개막전을 비롯한 조별리그 두 경기가 치러지는 전주에 입성, 지난 1983년 대회 4강 신화 재현을 위한 담금질에 나섰다.

대한민국 팀과 같은 A조에 소속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기니 대표팀도 같은 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전주로 이동해 선수단 및 FIFA 관계자들의 공식 숙소로 활용될 라마다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전주 도착과 함께 곧바로 이번 대회를 위한 훈련에 돌입,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팀의 조별리그 1·2차전은 이번 대회 흥행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주목받는 경기다.

특히, 대한민국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기니 등 축구 강국들과 한 조를 이루면서 본선 진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 경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대표팀은 전주에서 20일 기니전에 이어 23일까지 아르헨티나전 경기까지 두 경기를 치른 후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3차전 경기를 위해 수원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16강 진출을 결정지을 전주 경기에 대비하고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적응하기 위해 지난달에도 전주를 찾아 24일과 26일 전주대학교와 전북현대를 상대로 두 차례의 연습경기를 갖는 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전주를 찾은 대한민국 팀 등 A조 4개국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각국 감독 및 대표선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환영행사도 진행했다.

/김민근기자

女 축구대표팀, 4월 MBN 여성스포츠대상 수상

2018 아시안컵 예선, 조 1위 북한 제치고 본선행 '결실'

'평양의 기적'을 쓴 여자 축구대표팀이 2017 MBN 여성스포츠대상 4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고 종합편성채널 MBN이 16일 밝혔다.

여자 축구대표팀 윤덕여 감독과 주장 조소현은 이날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월간 시상식에 참석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7위인 여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안컵 예선에서 10위의 강호 북한과 비기는 등 3승1무로 조 1위를 기록, 북한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윤 감독은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조소현은 "평양의 기적을 발판 삼아 내년 요르단 아시안컵 본선에서 월드컵 티켓을 따내고 싶다"고 밝혔다.

여성스포츠대상 심사위원장인 최윤희 한국여성스포츠회장은 "한국 여자 축구의 저력을 보여준 대표팀에 박수를 보내며 더 큰 무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여성 스포츠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매월 국내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MVP로 선정하며, 1년 동안 한국 여성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선수들과 함께 12월 연말 시상식을 통해 대상 등 8개 부문 수상자에 대해 시상한다.

/김민근기자

여자 축구대표팀 윤덕여 감독과 주장 조소현은 이날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월간 시상식에 참석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프로농구 주희정, 20년 프로 선수 생활 마감 은퇴

프로농구 '철인' 주희정(40)이 20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정든 코트를 떠난다.

삼성은 16일 오전 "주희정이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오전 중으로 주희정의 은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16~2017시즌을 마지막으로 삼성과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주희정은 고민 끝에 결국 은퇴를 택했다.

고려대 2학년 때 중퇴하고 1997년 연습생 신분으로 원주 나래에 입단한 주희정은 20시즌 동안 최정상급 가드로 활약했다. 주희정은 2016~2017시즌까지 개인 통산 1029경기에 출전했다. 20시즌을 뛰는 동안 주희정이 결장한 경기는 15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강철 체력을 자랑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 통산 출전 경기 수가 1000경기가 넘는 것은 주희정이 유일하다. 2위인 김주성(원주 동부)이 2016~2017시즌까지 688경기에 출전한 것을 감안하면 주희정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희정은 개인 통산 어시스트(5381개)와 스틸(1505개)에서도 1위에 올라있다.

주희정은 통산 3점슛 2위(1152개)에 올랐다.

주희정은 통산 득점(8584점)과 리바운드(3439개)에서 각각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가드 중 통산 리바운드 1위다.

데뷔 첫 시즌인 1997~1998시즌 평균 12.7득점 4.2어시스트 4.1리바운드를 기록한 주희정은 신인왕에 등극했고, 2000~2001시즌 삼성을 챔피언에 올려놓으며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

/김민근기자

EPL 맨체스터 더비, 사상 첫 미국서 개최

세계적인 축구 라이벌전 중 하나인 '맨체스터 더비'가 미국에서 열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6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7월2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NRG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격돌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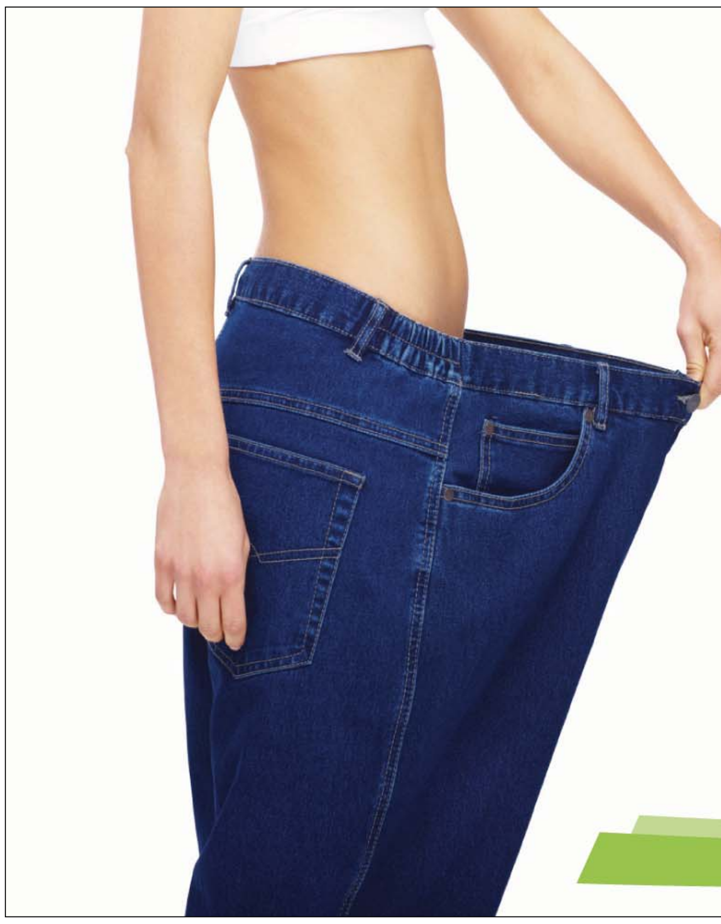
맨유와 맨시티의 맞대결은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두 팀이 영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기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드 우드워드 맨유 부회장은 "미국팬들 앞에서 팀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휴스턴에서 열린 지난 경기에서는 7만명 이상이 경기장을 채웠다. 이번에도 많은 팬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맨유는 2010년 7월 미국프로축구(MLS) 올스타와의 선경기에서 7만명이 넘는 관중을 불러 모았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는 맨체스터 두 팀과 레알 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이상 스페인), 파리 생제르망(프랑스), 유벤투스(이탈리아), 토트넘 핫스퍼(잉글랜드) 등이 출전한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